

## 뇌 과학에서의 자아와 신학적 자아

-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자아 이론을 중심으로

유경동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

### I. 서론

인간이 윤리적인 주체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다양하지만, 필자는 이 글에서 무엇보다도 인간 정신의 자율성과 자유개념을 중심으로 한 자아개념이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윤리적 행위라는 것이 자신의 의지와 별개로 외부적인 영향에 의하여 좌우된다면 주체적인 책임의식과 거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편 종교적인 영성과 각성은 과거의 자아를 새롭게 하는 존재론적 변화를 도모하게 되는데 이 또한 윤리적 주체성을 살피는 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자율성과 주체성 그리고 영성과 같은 개념들을 중시하면서 뇌 과학에서 밝힌 자아의 개념과 기독교 고전에 나타나는 자아의 개념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뇌 과학과 신학의 통섭을 위한 예비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인간의 자아 개념과 연관된 정신현상에 대한 뇌 과학의 관점들을 분석하고 기독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자아론을 통하여 뇌 과학과 신학의 소통을 시도하도록 하겠다.

필자는 이 글에서 세 가지 논지를 발전시킨다. 첫째, 자아개념에 대한 뇌 과학의 이론들을 분석하여 보겠다. 필자가 이해한 바로는 자아와 연관

된 뇌 과학의 관점은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파악되는데 그것은 각각 생물학적 차원에서 뉴런과 같은 뇌세포와 중추신경계통의 작용으로 보는 뇌신경적 관점, 이러한 뇌의 생물학적 작동 때문에 형성되는 뇌 의식과 인지작용, 그리고 뇌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뇌의 사회화 관점에서 보는 입장이 있다. 둘째,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에게는 현대 뇌 과학과 같은 학문적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지만, 신학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자아의 역할에 관한 탐구가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자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셋째, 뇌 과학의 자아개념과 고전의 신학적 자아개념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뇌 과학의 뇌 결정론적 관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신학적 대안에 대하여 제시하도록 하겠다. 바라기는 기독교윤리학계에 뇌 과학과 신학의 통섭이 거의 미미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양 학문 간의 교류를 위한 예비적 연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II. 뇌 과학에서의 자아의 개념

자아개념에 대한 뇌 과학의 입장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된다고 본다. 그것은 뇌의 신경학적 관점에서 뇌의 다양한 신경세포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자아개념과 연관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며, 그리고 뇌 기능에서 자아의 개념을 구성하고 인지하는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뇌 인지의 측면, 마지막으로 뇌가 인간의 주변 상황에 대하여 반응하는 뇌의 사회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뇌의 신경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정신 현상이 중추신경계와 면역계, 그리고 내분비계의 상호작용을 통한 뇌와 몸의 상호작용이라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sup>1)</sup> 이때 자아라는 개념을 정신적 구조물로서 뇌 속의 뉴런을 통하여 형성되는 이원적인 표상으로 설명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환상사지의 경우처럼 ‘공감각증’(synesthesia)으로 자아를 설명하는 것이다. 즉,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뇌는 여전히 그 신체

1) Walter Glannon, *Bioethics and the Bra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13.

의 부위가 있다고 착각하는 환상사지의 경우처럼 자아란 정신적 구성물로 보는 것이다.<sup>2)</sup> 비슷한 경우로 시각을 잃은 환자들이 생생한 시각적 경험을 하게 되는 ‘찰스 보넷 증후군’(Charles Bonnett syndrome), 측두엽과 변연계에 문제가 생겨 애정신호가 차단되면 얼굴이나 사물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여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카그라스 증후군’(Capgras syndrome), 그리고 감각영역이 변연계와 단절되어 외부와의 감정적 통로가 차단되어 죽음을 경험하는 ‘코타르 증후군’(Cotard’s syndrome)을 예로 들 수 있다.<sup>3)</sup>

자아의 형성에는 인간의 감각질의 세 가지 특징과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각각 ‘입력의 비가역성,’ ‘출력의 유연성,’ 그리고 ‘단기기억장치’의 예를 들 수 있다. 입력의 비가역성은 변화된 물질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여 한쪽 방향으로만 반응이 일어나는 성질을 말하며 예를 들어 노란 도넛의 증양은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노란색으로 보는 경우나, 맹점의 경우 망막 앞에 있는 신경이 뇌로 연결되는 지점에 형성되는데 맹점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색으로 메워지게 된다. 출력의 유연성은 노란 감각질과 연관된 경우 노란색의 종류인 바나나나 누런 치아, 그리고 황달이 같은 것으로 연상되는 경우이다. 한편, 단기기억장치는 지각적 표상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지속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맹시의 경우 한밤중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밤에 무슨 소리가 날 때 시각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 보지만 몸은 그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하여 의식적으로 감각질을 동원하여 마치 그 소리의 원인을 찾으려는 눈과 같은 기능을 하려고 하는 예를 들 수 있다.<sup>4)</sup>

감각질과 자아의 관계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누군가에게 경험되지 않은 채 공중에 떠다니는 감각질은 없으며, 모든 감각질을 결여한 자아도 상상하기 어렵다.”<sup>5)</sup> 자아가 형성되기 위하여서는 자의식의 유지를

2) 빌리아누르 라마찬드란/신상규 옮김,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 (서울: 바다출판사, 2007), 131.

3) 앞의 책, 304.

4) 앞의 책, 432-438. 라마찬드란은 의식활동은 측두엽에서 일어난다고 보는데 감각질과 연관된 지각표상의 산출과 행위로 연결하여주는 역할이 측두엽의 기능이라고 보고 있다. 앞의 책 448.

5) 앞의 책, 451.

위하여 연속감과 일체감, 자유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신체 전체를 인지하는 주체로서의 ‘신체화된 자아’(the embodied self), 변연계와 편도와 연관된 감정이 산출하는 ‘정열적 자아’(the passionate self), 무한한 가능성을 지향하는 자유의지로 충만한 ‘실행하는 자아’(the executive self),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기억하는 자아’(the mnemonic self), 변연계와 편도, 그리고 띠이랑의 기능과 연관되는 의식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통일된 자아’(the unified self), 각성혼수의 경우 빛과 소리에만 반응을 보이고 자극이 없는 경우에는 눈을 뜬 상태로 혼수에 빠지는 사례에서처럼 감각질과 의식의 신경회로의 관계를 보여주는 ‘경계하는 자아’(the vigilant self), 그리고 자전적 기억과 자신의 신체상을 유지하여 자아의 기능을 수행하는 ‘개념적 자아’(the conceptual self) 또는 ‘사회적 자아’(the social self)로 설명할 수 있다.<sup>6)</sup>

둘째, 뇌의 인지적 관점에서는 자아는 주로 정신현상이라는 맥락에서 해석이 된다. 정신현상은 뇌로 환원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자아란 개체 자신의 사고를 통하여 일인칭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인간의 의식은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는 공시성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과거와 미래의 의미를 파악하는 통시성을 자각하게 된다.<sup>7)</sup> 자아개념에 공시성과 통시성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의 자아는 과거의 자아와 미래의 자아의 현실적인 자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연합성, 연속성, 구체성, 자율성, 그리고 외부세계와의 관계성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sup>8)</sup> 한편, 자아는 뉴런들 사이의 정보를 전달하는 시냅스에 의하여 형성되고 유전적 요인과 경험에 의하여 암호화된 정보이며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여 인격을 구성한다.<sup>9)</sup>

아울러 자아개념에 있어서 의식과 무의식의 개념을 포함하여 우선 기

6) 앞의 책, 454-464.

7) Walter Glannon, *Bioethics and the Bra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32-33.

8) 앞의 책, 32.

9) 조지프 르두/강봉균 옮김, 『시냅스와 자아』 (동녘사이언스, 2005), 17-18, 29. 조지프 르두는 인간의 전뇌에서 주름진 바깥층인 신피질(neocortex)이 자아개념과 같은 고등정신 기능과 연관된다고 보고 있다.

본적 수준인 ‘일차자아’(proto self)와 ‘현재-지금’의 자신을 인지하는 ‘핵심자아’(core self), 그리고 자아개념의 가장 발전된 개념인 ‘자서전적 자아’(autobiographical self)로도 나눌 수 있는데 시상하부와 뇌간, 그리고 해마와 피질영역 등이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핵심적 자아는 인간의 정신 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다.<sup>10)</sup>

셋째, 자아개념을 자신과 구별되는 주변 환경에 대처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유전적인 생물학적 요인을 발전시켜 환경에 적응하는 가소성(plasticity)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자아는 외부의 자극에 스스로 대응하는 능력을 가진 자아이다. 자아는 타자,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외부 자극에 대한 내부 이미지로서 뇌가 자신과 여타와의 구별에 필수적인 해석이 개입할 때 두뇌는 외부적인 자극을 기억하고 구획화하고 그리고 재현함으로써 신경체계 안에서 반응하게 되는데 이때 개체는 자아개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sup>11)</sup>

자아는 개별주체의 의식을 가지게 되며 타자와 자신을 분리하여 인식하고 자의식을 가지게 된다.<sup>12)</sup> 이때 뇌의 자아는 외부세계의 반응에 자신을 방어하여야 하는 예측능력과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는 지적활동이 필요하게 된다.<sup>13)</sup> 여기서 자아는 환경을 리모델링하는 기능을 하며 자신과 타자, 그리고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추어 변화시키려는 인식과 공감능력, 언어, 그리고 집단기억을 통하여 사회적 메커니즘을 향상시킨다.<sup>14)</sup> 아울러 자아는 ‘자기감(sense of self)’으로 설명되며 자아의 범주화에 간섭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세계를 인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sup>15)</sup>

10) Antonio R. Damasio, *The Feeling of What Happens* (New York: A Harvest Book, Harcourt, Inc., 1999), 121-125.

11) Daniel C. Dennett, *Consciousness Explained* (MA,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91), 413-414. 타일러 부르게(Tyler Burge)는 같은 맥락에서 자의식의 맥락에서 사고하는 능력을 재귀성(reflexiveness)으로 보았다. Tyler Burge, *Foundations of Mind* (Oxford: Clarendon Press, 2007), 395.

12) 부르게는 자의식을 개별주체라는 인식과 연관하여 설명한다. Tyler Burge, *Foundations of Mind* (Oxford: Clarendon Press, 2007), 395.

13) 로돌포 R. 이나스/김미선 옮김, 『꿈꾸는 기계의 진화』 (북센스: 2007), 68.

14) Mario Bunge, *Matter and Mind: A Philosophical Inquiry* (New York: Springer, 2010), 185-186.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뇌 과학에서의 자아개념은 신경학적인 관점에서 뇌의 생물학적 요인들에 의하여 다양한 내분비계 내 기관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기는 구성물이라는 입장과, 이러한 요인들에 의하여 특수하게 형성되는 뇌의 인지적 요소들, 그리고 자극과 반응이라는 메커니즘 속에서 사회적 요인과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개념임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신학적인 관점에서 자아의 개념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 필자는 특별히 기독교신앙과 신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관점을 살펴봄으로써 뇌 과학의 자아개념과 통섭할 수 있는 예비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어거스틴의 영혼과 육체라는 이원론적 관점에서 자아의 위치와 아퀴나스의 덕론의 관점에서 자아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뇌 과학의 자아이론과 비교하여 보도록 하겠다.

### III. 어거스틴의 자아개념

어거스틴의 자아이론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보면 첫째,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둘째, 자아 개념의 본질은 영성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악되며 또한 진리의 성경과 연관이 되고, 셋째, 죄로부터 회복된 자아는 삼위일체 안에서 발견하는 참된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거스틴은 자아란 육체가 아니라, 영혼으로 존재하며,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를 추구하는 욕망을 가진 주체로 이해한다. 또한 자아는 고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며, 어거스틴은 특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자아가 점진적으로 변화됨을 주장한다. 따라서 어거스틴에게 자아는 인간성의 완성이라는 완전의 개념이 아니라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특히 영성과 깊이 연관되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어거스틴에게 자아의 의미가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죄로부터 회개하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대목이다. 그는 회심하기 전 하나님을 떠

15) Robert N. McCauley, *Why Religion is Natural and Science is No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186.

나 방탕하게 살았던 것을 회상하며 주님께서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자신의 잘못된 자아를 깨닫게 하시고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셨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헛된 것을 계속 고수하지 않도록, 나의 머리를 누그러뜨리고, 나의 지식을 거두시고, 내 문을 닫으신 후에야 나는 나의 이전 자아의 무언가를 그치게 되었고, 나의 광적인 욕망 또한 사라졌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 깨어났고, 주님의 무한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주님의 무한함을 볼 수 있던 것은 절대 육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sup>16)</sup>

어거스틴은 자아가 육신의 욕망을 극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랑의 형태로 변화하면서 회심하기 이전의 자신의 자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한탄한다. “내가 얼마나 가없는 존재였는지. 나의 모든 영혼은 멸망당할 것들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그 모든 멸망당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자,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sup>17)</sup> 이와 같이 자신의 욕망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다른 실존에 있었을 때, 자신의 자아의 욕망은 죽음에의 두려움과 혐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 안에 두 가지의 자아가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한다. 한 자아는 자신이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은 자아지만 결국 죽음에서 헤어날 수 없는 자아이다. 이때 다른 자아는 이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아로부터 각성하여 영적인 자아로 나아가게 된다.<sup>18)</sup>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온전히 새로워진 자아는 철저히 육체와 구별되는 영혼에 거하며, 이때 영혼은 육체에 제한되지 않고 육체의 한계를 극복한다. 그러나 어거스틴에 따르면 자아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최고의 가치임을 믿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는 본래 자신의 내재적인 죄성을 깨닫지 못하며 단지 그들 자신의 습관에 따라 죄를 추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

16) Augustine, *Confession* tr. by Edward B. Pusey. (New York: Random House, 1949), 7권 14장. 158. 어거스틴의 고백록 영역본은 아래의 책을 참고하였다.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 Ethereal Library edition, URL=<http://www.ccel.org/ccel/augustine/confess.html>

17) 앞의 책, 4권 6장, 85.

18) 앞의 책, 4권 6장, 85.

는 나라나 시대에서 경멸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비난할 만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한계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sup>19)</sup> 따라서 인간이 자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다.

둘째, 영혼과 자아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서 올바른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를 증거하는 성경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영혼의 눈으로만 인식 가능하며, 하나님 자신은 인간의 정신을 넘어서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빛’(the Light Unchangeable)으로 존재하신다.<sup>20)</sup> 하나님 자신은 변하지 않는 빛으로서 언제나 인간을 비추신다. 따라서 인간의 자아와 하나님의 관계는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망하고 그의 뜻을 추구하는지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빛으로서 인간은 그 크신 사랑에 의하여 경외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으며 그 빛이 비추일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진리이신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깨닫게 된다. 이때 각성된 자아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게 되는 것이다.<sup>21)</sup>

자아가 새롭게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움직임이다. 인간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인식하고 그리고 무엇을 구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게 될 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 인간은 존재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바라는 이 세 가지의 존재 방식을 통하여 올바른 삶과 정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된다.<sup>22)</sup>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본질은 삼위일체적 본질을 의미하여 그 속성은 불변하는 ‘동일한 자아성’(the Self-same)이다. 반면 인간의 자아는 인간의 존재(being) 유형과 인식(knowing)의 방식, 그리고 의지(will)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19) Augustine, "On Christian Doctrine in Four Books," tr. by J. F. Shaw, Philip Schaff, ed.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 2: *St. Augustine's City of God and Christian Doctrine* (NY: The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1890), 1274. 어거스틴의 영역본은 아래의 자료에서 참고하였으며 이하 저자명은 'Augustine'으로 통일한다.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 Ethereal Library edition, URL = <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2.html>

20) Augustine, *Confession*, 7권 10장, 154.

21) 앞의 책, 7권 10장, 154.

22) 앞의 책, 13권 11장, 345.



따라서 인간의 올바른 자아에 표준이 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데 어거스틴은 성서의 권위를 통한 인간의 변화에 대하여 모색하고 있다. 물론 인간은 성서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없으며, 대개 비유적(figurative)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성서의 기본 대원칙인 사랑(charity)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아는 이를 목표로 하며, 욕망(lust)을 경멸한다. 인간의 삶이 이러한 성서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불가피하게 자기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관습적, 역사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진리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성서가 제시하는 사랑을 강화하고 욕망을 근절하여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sup>23)</sup>

성서가 기독교인의 윤리적 기준이라면, 인간의 추구하여야 할 덕과 피하여야 할 죄는 성서의 진리를 기반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때 인간의 자아와 그 욕망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목적 아래에 놓여 있어야 한다. “사랑이란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지향하는 마음이며, 그 뒤에 이어서 자기 자신과 그 이웃의 즐거움이 뒤따라야 한다. 사랑과 대척점에 있는 욕망이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쾌락을 지향하며, 다른 육체적인 것들을 지향하는 것이다. 욕망이 자기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악이라 하고, 그 악이 또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범죄라 한다.”<sup>24)</sup> 이와 같이 어거스틴은 악덕은 자신의 욕망의 결과이며, 영혼과 육체를 모두 타락시키는 원인으로 본다.

그런데 여기서 자아는 특별히 영혼에 거하기 때문에, 악덕이 영혼 안에서 인간의 영혼을 잠식하게 되면, 양심의 작용이 사라지고, 결국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기제는 사랑의 덕에도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사랑이 한 개인 자신의 이익에 관하여 하는 것이 신중함(prudence)의 덕이다. 그리고 사랑이 이웃의 이익에 관하여 행하는 것은 선행(benevolence)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신중함이 먼저 나온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 자신이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익까지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욕망에 사로잡힌 비율이 줄어들면, 그만큼 사랑의 비율이

23) Augustine, “On Christian Doctrine in Four Books,” 1274.

24) 앞의 책, 1274.

늘어난다.”<sup>25)</sup> 여기서 자아는 신중함을 통하여 욕망 대신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을 향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영성을 통하여 회복된 자아는 인식론적인 주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거스틴은 인간이 지식을 통하여 어느 정도는 확실성에 거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하나님의 도성에 대하여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정신과 이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도성은 가장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진다. 비록 그것을 아는 지식은 정신에 가해지는 타락할 육체로 인해 제한적이지만 말이다.”<sup>26)</sup> 즉, 자아는 인식주체로서 정신과 영혼에 속하는 주체인데, 육체로 인해 타락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완전하지 못하면서도 완전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자아의 최고 지향점, 즉 자아가 다다르고자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자아가 만족할 만한 주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거스틴은 자아의 ‘주체성(subjectivity)’을 하나님의 삼위일체성과 결부하며 자유와 연관하여 설명한다. 어거스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온전히 거하며 참된 자아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존재를 알며, 우리 존재로 인해 즐거워하고,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즐거워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회복된 자아는 자신의 존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이 지음 받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삼위일체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자각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형상이 하나님 자체와 동일한 것이 아니며,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아를 깨닫게 된다. 비록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처럼 영원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동질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 자신과 가까우며 훨씬 더 닮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sup>27)</sup>

이때 인간은 자아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존재의 형상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통하여 그 자아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

25) 앞의 책, 1274-1275.

26) Augustine, “City of God,” tr. and ed. by M. Dods, *Works of St. Augustine*, Vol.2 (Edinburgh: T&T Clark, 1871), 328.

27) 앞의 책, “City of God,” 11권 26장, 468.

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영혼은 확신에 거하게 된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실존의 확실성에 대하여 영혼과 결부하여 설명하면서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을 강조한다.<sup>28)</sup> 결국 어거스틴에 따르면 자아는 이성과 믿음을 통해 존재하며 나아가 영혼과 연관하여 영원히 존재하게 됨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어거스틴은 자아가 타락한 자아로부터 말씀의 진리에 근거하여 영원한 영혼의 본성에 부합하여야 하는 인식에 다다르기 위하여서는 육체적 감각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식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다루는 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고 속에서 외부로부터 받은 모든 지식, 즉 육체의 감각을 통해 인식된 모든 지식을 제거해야 한다.”<sup>29)</sup> 이러한 지식의 분별과 인식은 영혼의 능력이며, 어거스틴은 이를 내적 존재, 즉 자아로 이해한다. 자아에 대한 인식은 자아 자체가 외적인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감각적 인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감각 세계로부터 얻은 것이 아닌 또 다른, 더 고귀한 영적 감각을 가진 주체로서 이 감각은 내적인 존재에 속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부정의한지를 인식할 수 있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30)</sup> 결국, 진정한 자아는 자신에 대한 인식에 다다르며 자신이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을 의심하는지를 깨닫는 존재임을 자각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다.<sup>31)</sup>

어거스틴은 감각과 인식의 과정에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를 “눈에 보이는 육체의 형태와 감각에 작용하는 형상, 그리고 감각적인 것에 감각을 적용하고 감각 그 자체를 얻는 정신의 의지”로 정리한다.<sup>32)</sup> 인간의 사고는 기억과 내적인 감각, 그리고 의지이며, 의지는 다른 요소들을 결합하는 가

28) Augustine, “On Trinity,” 15권, 15장, tr. by A. W. Haddan, M. Dods, ed., *Works of St. Augustine*, Vol.3 (Edinburgh: T&T Clark, 1871), 409.

29) Augustine, *The Soliloquies of St. Augustine* tr. by Rose E. Cleveland,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10), 51-52.

30) Augustine, “City of God,” 11권 27장, M. Dods, ed., *Works of St. Augustine*, Vol.1 (Edinburgh: T&T Clark, 1871), 471.

31) Augustine, “On Trinity,” 10권, 10장, 256.

32) 앞의 책, 11권, 2장, 266.

장 중요한 자리이다.<sup>33)</sup> 이렇게 볼 때, 자아는 의지의 자율성과 더불어 설명할 수 있으며 진정한 자아의 인식에 다다르게 될 때 자아는 자유와 연관이 된다. 어거스틴은 자아와 자유를 결부하여 정의하는데 그에 따르면 자아는 곧 자신의 의지를 인식함으로써 자유를 가지게 된다. “나는 또한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sup>34)</sup> 또한 “나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절대 부인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sup>35)</sup>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물론 영속적이지 않고 순간적이라는 점을 어거스틴은 강조한다. 의지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하면 영혼의 움직임 또한 틀리게 될 것이며 만약 의지가 옳다면, 영혼의 움직임은 결백할 뿐만 아니라, 찬양할 만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이 볼 때 의지란 그 모든 것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것을 소망함으로써 인간은 기쁨에 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지 못할 때 그 결과는 두려움과 슬픔이 남게 된다.<sup>36)</sup> 따라서 자아에 있어서 자유의지는 주체성과 연결되지만, 인간의 자유는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에 종속될 때 진정한 자아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따르기 위하여서는 임시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감각적인 충동을 거부하고 덕을 키우는 유용한 훈련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sup>37)</sup>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어거스틴에게 자아개념은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자아와 주의 은혜로부터 회복된 자아개념으로 나뉘며, 회복된 자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참된 자유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자아는 감각의 세계를 통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눈이나 감각 그리고 잘못된 의지를 통하여 영향을 받는 욕망을 제어하고 항상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때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자아를 새롭게 인식하여 이 내적 자아는 비록

33) 앞의 책, 14권, 6장, 268.

34) Augustine, “City of God,” 12권 9장, 491.

35) Augustine, *Confession*, 7권 3장, 144.

36) Augustine, “City of God,” 14권 6장, M. Dods, ed., *Works of St. Augustine*, Vol.2 (Edinburgh: T&T Clark, 1871), 9.

37) Augustine, “De Libero Arbitrio,” 3권 1장, tr. by Marguerite. W. Kehr, M. Dods, ed., *Works of St. Augustine*, Vol.2 (Edinburgh: T&T Clark, 1871), 1272.

육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 IV. 아퀴나스의 자아개념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아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것은 존재론과 관련하여 육체와 영혼의 원리에 의하여 구성되는 자아, 자아가 추구하는 최고 목표는 행복이며, 그리고 자유의지와 연관된 개념으로서의 자아이다. 그 내용을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8)</sup>

첫째 아퀴나스의 자아 이론은 어거스틴과 마찬가지로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서 파악된다. 아퀴나스의 자아 이론 또한 어거스틴의 영혼론과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진 영혼의 지적 능력은 죄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본질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다. 아퀴나스의 존재론에 따르면, 감각을 통한 인식은 대상이 잠재태일 때는 불가능하지만 현실태일 때는 가능하다. 비물질적인 자아는 그 자체의 본질에 따른 실재를 통해 인식 가능하다. 아퀴나스는 인식 가능성을 가진 자아의 주체성을 하나님과 인간으로 분리하여 설명하여 인간이 영적인 실재와 육체적 실재로 구성되어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특히 자아와 의지, 덕의 주체로서 영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자아 이론의 핵심이 된다.

자아를 어떠한 작용을 하는 원리의 주체로 이해한다면, 이는 철저히 영혼의 본질과 더불어 설명해야 한다. 아퀴나스는 영혼이란 첫 번째 생명의 원리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인간의 삶은 그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원리가 되는 '지식'과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움직임'이라는 두 가지 운동으로 나타난다.

아퀴나스는 첫 번째 생명의 원리로서 영혼은 육체가 아니지만, 영혼의 작용은 육체의 원리와 같다고 설명한다. 이는 인간의 본질을 파악함에 있

38)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Summa theologiae*)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tr. by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New York: Benziger Bros., 1947),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Edition, URL=<http://www.ccel.org/ccel/aquinas/summa>

어서 육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기 위하여서는 능력이 부여되어야 하며 그 작용의 원리를 영혼으로 설명하고 있다. 영혼을 설명하면서 아퀴나스는 심장을 비유로 예를 들고 있다. 심장은 살아있는 동물이 활동하게 하는 생명의 원리가 되지만 그러나 육체적인 기능을 하는 심장이 생명의 첫 번째 원리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리란 심장을 포함하는 육체가 움직이게 하는 어떤 원리를 말하기 때문이다. 육체가 움직이도록 하는 원리가 여기서 영혼이 되는 것이다.<sup>39)</sup>

아퀴나스는 인간의 실존은 육체와 영혼의 조합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자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자아가 영혼만의 작용에 제한하지 않고 육체와 영혼과의 관계에서 파악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혼이 인간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퀴나스는 인간의 속성과 작용을 영혼에만 속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영혼은 육체의 작용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자아는 바로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의하여 형성되는 정신적인 구성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감각은 영혼의 작용이 아니라, 육체의 작용이다. 감각은 육체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혼 또한 육체의 원리와 같이 작동되기 때문에 영혼만으로도 인간을 전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sup>40)</sup>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자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의 본질은 순전하고 완전한 행위로서 인식의 주체가 된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본질을 통해 스스로를 알며 다른 존재들을 안다. 반면 인간의 지적 능력은 인식 가능한 존재류에 따라 가능태로서 작동한다. 인간은 육체로 지음 받은 감각에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본질에 대하여도 가능태로 인식하게 되며 결국 신적인 진리로부터 내려온 지적인 빛에 의해서만 자신을 온전히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sup>41)</sup>

둘째, 아퀴나스는 자아가 육체와 영혼의 관계에서 완전한 행위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전제로 결국은 행복이 자아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임을 강조한다. 행복을 파악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요하다. 행복을 본질적인 측면에서, 선행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

39) Aquinas, *Summa*, I-II (the first part of the second part), Q(question)75, A(article). 1.

40) Aquinas, *Summa*, I-II, Q75, A. 4.

41) Aquinas, *Summa*, I-II, Q87, A. 1.

나누어서 생각하여 볼 수 있다.<sup>42)</sup> 행복에는 두 가지의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행복이라는 본질 자체와 행복이 발생하는 적절한 환경이다. 행복은 최후에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욕망(desire)은 행복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의 의지는 최후에 행복을 성취하였을 때 기쁘게 된다. 지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욕망이 먼저 시작이 되고 지성의 행동에 의하여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의지는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아퀴나스에게 자아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행복으로 나타난다.<sup>43)</sup> 행복은 ‘실천적인 지성’(practical intellect)에 의한 산출이라기보다는 ‘사변적인 지성’(speculative intellect)에 의한 것이라고 아퀴나스는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만일 인간의 행복이 어떤 작용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인간에게 최고의 것이어야 하며, 그 최고의 것은 ‘신적인 선’(Divine Good)이다. 따라서 이러한 최고의 선을 명상함으로써 아퀴나스는 이것이 ‘인간의 자아’(man’s self)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sup>44)</sup> 실천적 지성은 사변적 지성이 목적으로 하는 그 방향에 따라 움직이며 이에 따라서 인간은 자신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아퀴나스의 자아 이론은 인간의 자아는 스스로 행복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아퀴나스에게 자아개념은 자유의지와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긍정한다.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동물은 자율적인 판단보다는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 반면 인간은 판단을 근거로 행위를 하는 주체로서 인간은 자신의 이해력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할지를 파악하며, 그리고 추구하여야 할 목적을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물처럼 자연의 본성에 따라 할 수 없으며 이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간은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행위하며,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42) Aquinas, *Summa*, I-II, Q3, A. 3.

43) Aquinas, *Summa*, I-II, Q3, A. 5.

44) Aquinas, *Summa*, I-II, Q3, A. 5.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Ethics*, ix, 8 and x, 7)을 인용한다.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전제하는 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sup>45)</sup>

아퀴나스는 인식주체로서 자아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은 그 행위를 통해서라고 본다.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의 궁극적인 완성은 그 자체의 작용으로 구성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행위가 완전하기 위하여서는 본래 의도한 것과 다른 것을 지향하는 행위로 이어진다면 이는 완전한 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위가 완전하기 위하여서는 본래의 의도대로 행위를 하는 주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sup>46)</sup>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자아가 행위의 인식주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자율성(the voluntary)’이 전제된다. 아퀴나스는 인간 행위에는 자율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필연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어떤 행위나 운동 원리가 주체 내에 있어서 그것이 움직이게 되는지, 아니면 어떤 운동이나 행위 원리가 그 주체의 밖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서 돌이 위로 움직여진다면, 이러한 운동의 원칙은 그 돌 밖에 있는 것이며 반면에 돌이 아래로 움직여진다면, 이 운동의 원리는 자연적으로 그 돌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돌의 경우와 같이 내적인 원리에 따라서 돌이 아래로 하강한다면 이는 돌에게 운동의 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운동의 목적을 위한 원리가 되는 것이다.<sup>47)</sup>

이러한 물리학적 원리를 인간에게 적용한다면, 인간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주체 내의 원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곧 인간의 자율성에 근거한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신의 행위 결과를 인식한다. 이를 통해 보면, 인간이 자신의 행위 목적을 아는 한, 그는 자기 자신을 움직일 수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을 그 주체의 자율성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up>48)</sup>

그러나 아퀴나스는 이러한 주체의 자율성을 무제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아퀴나스는 인간의 자율성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행동하도록 움직이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감각에 따라 원하는 것을 제공하

45) Aquinas, *Summa*, I-II, Q83, A. 1.

46) Aquinas, *Summa*, I-II, Q87, A. 3.

47) Aquinas, *Summa*, II-I, Q6, A. 1.

48) Aquinas, *Summa*, I-II, Q87, A. 1.



거나 인간의 육체에 변화를 주기도 하며, 인간의 의지 자체를 움직일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운동은, 그것이 의지의 움직임이든지, 아니면 본성의 움직임이든지, 최초의 동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초의 동자(動子)인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적 운동의 본성이 시작된다면 인간의 자율적 행위의 본성과도 반대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간의 자율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인간의 자율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자율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아퀴나스에게 자아는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을 목표로 하면서도 인식의 주체성을 확보하고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복이나 인식 그리고 자율성의 최고 원리가 되는 하나님을 전제함으로써 자아는 하나님의 선행적 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 언뜻 아퀴나스의 자아는 인간 이성의 독립성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조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 V. 결론: 뇌 과학의 자아와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의 자아

뇌 과학에서 살펴본 자아개념은 영혼의 역할이나 자율성의 개념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뇌의 신경세포의 역할에 의하여 구성되는 자아는 실체가 아니라 신경이 구성하는 일련의 구성체이며 방어기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신경세포의 역할에 따라서 인지작용에도 다양한 변수가 생기며 더욱이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자아개념은 매우 불안하고 통시성과 공시성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반면 어거스틴과 아퀴나스가 이해한 자아는 신적 형상을 회복하여야 하는 개념으로서 비록 육체의 한계 안에 갇혀 있지만, 그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개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어거스틴이 강조하는 자아란 바라는 욕망을 추구하는 주체이면서도 영혼에 존재한다고 본 점이다. 이는 자아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고통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함으

로써 생기는 불행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전의 자아로부터 탈출하려는 존재론적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sup>49)</sup> 따라서 자아가 이러한 이중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덕과 죄에 빠지게 되는 인간의 문제를 성찰함으로써 자아를 고찰하고 있다. 자아가 추구하여야 할 신앙의 순결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기독교 교리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제시한다.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의 양심 안에서 희망을 품으며,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식,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지식을 얻었음을 인지하게 된다.

아퀴나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이 감각의 세계, 지식의 세계, 그리고 영혼의 세계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잠재태에서 현실태로의 구현을 전망하고 있다. 인간의 자유와 자율성은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완전하지 못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아는 행복을 추구하며 그 행복의 끝은 자신이 의도한 것을 실천하는 자율성의 확보에 있다. 자아는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자신의 자유를 성취함으로써 행복을 알게 되는데 이 행복은 궁극적으로는 사변적 지성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 모든 것의 능동인이 되시고 원인이 되는 하나님의 순수한 자유 안에서 인간의 자연적 본성 또한 자유를 얻게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뇌 과학에서 자아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정신 현상으로서 뇌의 가소성을 통하여 형성되는 개념이다. 생물학적인 차원과 인지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 특성에 제한되어 있는 몸과 정신의 유기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뇌 과학의 자아개념과 기독교 신학의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에 나타나는 자아개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뇌 과학과 어거스틴 그리고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자아는 각각 육체의 한계와 공시성, 그리고 통시성을 적절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다. 뇌 과학과 어거스틴 그리고 아퀴나스는 인간 존재가 시간과 공간 안에 구속되어 있는 육체를 가진 인간임을 다 인정하고 있다. 특히 뇌 과학은 인간의 뇌를 통하여 형성되는 자아의 개념은 매우 감각질과 기억 그리고 외부 입력과 출력의 비가역성과 유연성을 통한 매우 정교하며 과학적이고 그리

49) Augustine, *Confession*, 8권 3장, 171.

고 일반적인 합리성을 뛰어넘는 구조를 구축하여 주변 환경을 극복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뇌 과학은 자아의 형성과 역할에 대하여 광범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영혼의 선재를 강조하는 어거스틴의 자아개념이나 하나님에게 의지함으로써 완성되는 아퀴나스의 자아개념은 없다. 어거스틴과 아퀴나스가 설명하여주지 못하는 뇌 신경의 역할과 인지력,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반응하는 인간성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뇌 과학은 자아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주지만, 옛 자아에서 새로운 자아로의 영적 각성과 육체적 욕망의 한계를 넘어 영혼의 깊이를 추구하는 자아에 대하여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이런 맥락에서 뇌 과학에서 자아는 생물학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구성하는 창발성의 특징을 가진 데 비하여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자아는 육체적인 감각의 욕망에 구속되어 있는 옛 자아를 극복하고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는 영적 개념과 연관이 되며, 그 궁극적인 목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서 주어지는 행복을 추구하는 자아로 그려지고 있다. 뇌 과학에서 자아는 자기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를 통합하는 자서전적 자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어거스틴과 아퀴나스는 자서전적 자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자아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뇌 과학에서 자아는 주변의 환경, 즉 생물학적이거나 사회학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가소성이라는 기준율에 의하여 형성되는 정신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에 의하여 강조되는 자아는 인간의 자아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서 신적인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는 영적 섭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자아는 감각과 인지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영적인 지식을 수용하는 도구가 된다.

셋째, 기독교윤리학의 자아개념에서 강조하는 자유와 자유의지, 그리고 자율성에 관하여 뇌 과학의 자아는 생물학적 한계나 인지과학의 합리성,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제한되는 가소성에 부딪히게 된다. 물론 뇌 과학에도 자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연합과 연속, 그리고 자율성과 외부세계와의 관계성을 통하여 유전적 요인과 더불어 환경을 통하여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며 인격을 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보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인간의 정신활동에 하나님의 개념이 작동할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인간의 자아가 자신을 넘어서 영적 실체와 조우하는 기독교적 자아 개념 또한 뇌 과학에서의 자아개념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에게 자아는 육체의 제한성을 극복하는 자아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실천적 지성과 사변적 지성의 연합을 통하여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일체를 강조하는 자율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인간의 자아는 궁극적으로 참된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인간의 자유를 그리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구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 뇌 과학에서 밝히는 자아의 개념을 통하여 인간의 의식과 자율성, 그리고 의지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날로 정교화되어 가지만 여전히 생물학적 인과율에 제한되어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한편,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영혼과 자유의지는 과학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거스틴과 아퀴나스가 설명하려고 한 자아개념을 통하여 뇌 과학과 신학 간에 통섭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또한 인간의 책임과 자율성을 탐구하는 윤리학을 생물학적 인과율에 의존하지 않고 더욱 심오한 종교성의 발로에서 찾으려는 신학적 노력도 동시에 요청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인간성의 이해가 깊어지며 육체의 욕망을 넘어 보다 깊은 인간성의 성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 주제어

뇌 과학, 자아, 영혼, 어거스틴, 아퀴나스 (neuroscience, self, spirit, Augustine, Aquinas)

접수일: 2016년 2월 19일, 심사완료일: 2016년 3월 10일, 게재확정일: 2016년 3월 15일

## 참고문헌

- 라마찬드란, 빌라야누르/신상규 옮김. 『라마찬드란 박사의 두뇌 실험실』. 서울: 바다출판사, 2007.
- 이나스, 로돌포/김미선 옮김. 『꿈꾸는 기계의 진화』. 북센스, 2007.
- 르두, 조지프/강봉균 옮김. 『시냅스와 자아』. 동녘사이언스, 2005.
- Augustine. *Confession*. Tr. by Pusey, Edward B. New York: Random House, 1949.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 Ethereal Library edition. URL=<http://www.ccel.org/ccel/augustine/confess.html>
- \_\_\_\_\_. “On Christian Doctrine in Four Books.” Tr. by Shaw, J. F. Schaff, Philip. ed.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ries I. Vol.2: *St. Augustin’s City of God and Christian Doctrine*. New York: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 1890.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 Ethereal Library edition, URL=<http://www.ccel.org/ccel/schaff/npnf102.html>
- \_\_\_\_\_. “City of God.” Tr. & ed. by Dods, M. *Works of St. Augustine*, Vol.2. Edinburgh: T&T Clark, 1871.
- \_\_\_\_\_. “On Trinity.” Tr. by Haddan, A. W. Dods, M. ed. *Works of St. Augustine*, Vol.3. Edinburgh: T&T Clark, 1871.
- \_\_\_\_\_. *The Soliloquies of St. Augustine*. Tr. by Cleveland, Rose 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10.
- \_\_\_\_\_. “De Libero Arbitrio.” Tr. by Marguerite, W. Kehr. Dods, M. ed. *Works of St. Augustine*, Vol.2. Edinburgh: T&T Clark, 1871.
- Aquinas, Thomas. *Summa Theologica*. Tr. by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New York: Benziger Bros., 1947.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Edition, URL=<http://www.ccel.org/ccel/aquinas/summa>
- Bunge, Mario. *Matter and Mind: A Philosophical Inquiry*. New York: Springer, 2010.
- Burge, Tyler. *Foundations of Mind*. Oxford: Clarendon Press, 2007.
- Damasio, Antonio R. *The Feeling of What Happens*. New York: A Harvest Book, Harcourt, Inc., 1999.
- Dennett, Daniel C. *Consciousness Explained*.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91.

Glannon, Walter. *Bioethics and the Bra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McCauley, Robert N. *Why Religion Is Natural and Science Is No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한글초록

필자는 이 글에서 세 가지 논지를 발전시킨다. 첫째, 자아개념에 대한 뇌 과학의 이론들을 분석하여 자아와 연관된 뇌 과학의 관점은 세 가지 견해를 정리하였다. 그것은 각각 생물학적 차원에서 뉴런과 같은 뇌세포와 중추신경계통의 작용으로 보는 뇌신경적 관점, 이러한 뇌의 생물학적 작동 때문에 형성되는 뇌의식과 인지작용, 그리고 뇌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뇌의 사회화 관점에서 보는 입장이다.

둘째, 어거스틴과 아퀴나스에게는 현대 뇌 과학과 같은 학문적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지만, 신학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자아의 역할에 관한 탐구가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자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정리하였다.

어거스틴에게 자아개념은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자아와 주의 은혜로부터 회복된 자아개념으로 나뉘며, 회복된 자아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된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참된 자유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자아는 감각의 세계를 통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눈이나 감각 그리고 잘못된 의지를 통하여 영향을 받는 욕망을 제어하고 항상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때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자아를 새롭게 인식하여 이 내적 자아는 비록 육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아퀴나스에게 자아는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을 목표로 하면서도 인식의 주체성을 확보하고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복이나 인식 그리고 자율성의 최고 원리가 되는 하나님을 전제함으로써 자아는 하나님의 선행적 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 언뜻 아퀴나스의 자아는 인간 이성의 독립성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조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안에서의 이성과 자율성이 강조된다.

셋째, 뇌 과학의 자아개념과 고전의 신학적 자아개념과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뇌 과학의 뇌 결정론적 관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신학적 대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현대 뇌 과학에서 밝히는 자아의 개념을 통하여 인간의 의식과 자율성, 그리고 의지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날로 정교화되어 가지만 여전히 생물학적 인과율에 제한되어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한편,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영혼과 자유의지는 과학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거스틴과 아퀴나스가 설명하려고 한 자아개념을 통하여 뇌 과학과 신학 간에 통섭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또한 인간의 책임과 자율성을 탐구하는 윤리학을 생물학적 인과율에 의존하지 않고 더욱 심오한 종교성의 발로에서 찾으려는 신학적 노력도 동시에 요청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인간성의 이해가 깊어지며 육체의 욕망을 넘어 보다 깊은 인간성의 성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 The Concept of Self in Neuroscience and Theology

— On Augustine and Thomas Aquinas

Kyoung-Dong Yoo

Professor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Seoul, Korea

The remarkable development in neuro-science calls our attention not only to the cognitive functions of the human brain but also to the understanding of self. In the discussion of the comparison between the idea of self in brain science and theology, traditional theologians such as Augustine and Thomas Aquinas are introduced to explore their understanding of self in relation to God and the Bible.

Augustine's theory of self is based on his notion of body-soul dualism and free will. Augustine places human self into soul, not body. For Augustine, human self is the principal agent in the control of both desire and perception. As the supervisor of perception, human self controls human sense, cognition, and thought. With regard to its perceptive ability, Augustine states that human soul reflects the trinity of God. Augustine also states that the human soul is limited. As the controller of desire, the human soul is under the influence of the human's limited free will. Through human's individual being, knowing, and will, the human soul can be corrupted.

However, Aquinas presents a very different view on human self. While Augustine considers human self as being totally distinguished from body, and only belonging to the soul, Aquinas argues human soul cannot be explained by either soul or body. Aquinas regards human self as the combination of body and soul. For Aquinas, human self is the principal agent of free will. Human self with free

will pursues the ultimate goal and has the abilities of rational judgment and decision-making. In this respect, Aquinas's theory of human self shows a more positive attitude to human self than Augustine.

After reviewing the above issues briefly, this paper comes to a conclusion that the theological understanding of self is deeper than that of brain science regarding the human subjectivity and the free will in relation to God's purpose to recover the image of God in human beings.